

온돌, 국제표준안 채택 “세계진출”

국내 온돌의 국제표준화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최근 7건의 온돌관련 신규 국제표준안이 국제표준기구 기술위원회(ISO/TC) 회원국 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 국제표준안으로 채택됐다고 3월14일 발표했다.

국제표준안은 앞으로 ISO 기술위원회 산하 워킹그룹(Working Group)에서 최종안으로 확정돼 회원국 투표를 거쳐 통과하면 국제표준으로 제정된다. 2007년에는 온돌 파이프 관련 4건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된 바 있다.

온돌은 난방 시 느낄 수 있는 따뜻함과 쾌적함 이외에 에너지 절약, 혈액순환 촉진 및 신진대사 활성화 등에도 좋아 세계인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유럽에서는 50% 이상의 신축 주택에 온돌이 설치되고 있으며, 미국 온돌시장도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위원회를 통과한 온돌 관련 국제표준안은 온돌 사용시 사람들이 느끼는 쾌적 기준, 온돌 바닥의 두께와 넓이 등에 따른 난방 용량, 온돌 시스템의 설계 기준, 온돌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성능, 온돌의 설치·운용 등 유지관리 지침 등으로, 국제표준으로 규격화되면 각국의 난방관련 기준으로 활용돼 국내 온돌의 세계시장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화학저널 2008/03/13>